

사과바이러스·바이로이드병 딱 보면 압니다!

조인숙 원예특작환경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도 주산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꽃매미는 올해도 전국에 발생되어 농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조사한 발생면적은 7천여ha로 전년보다 11% 정도 감소했지만, 발생지역은 10개 시도, 68개 시군으로 전년보다 20개 시군이 늘어나 확산추체에 있다.

바이러스병

고접병 : 고접 갱신 시 접목 부위가 이상하게 비대되어 접목이 안되고, 신초의 생육이 나빠지면서 서서히 나무 수세가 쇠약해진다. 접목 부위의 목질부를 보면 홈이나 패인 자국들이 보이기도 하고 갈변 괴사하여 접목 활착률이 떨어진다.

사과모자이크바이러스병 : 봄 발아기에 턱잎부터 모자이크 증상이 나타나는 병으로 잎맥을 따라 누렇게 되며 심하면 잎 주위가 갈변되고 더 심해지면 잎이 떨어지기도 한다. 사과모자이크바이러스에 감염된 나무는 과실 생산이 30~50%까지 감소되고 주간 비대생장의 저하로 성장량이 최대 50%까지 저하된다.

홍로 소과 : 홍로 품종에서 과실이 점점 작아지면서 돌처럼 딱딱해지는 이상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6~7년생 성목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과즙이 거의 없고 숙기도 지나치게 늦어지는 이상과들이 결실되는데 한 번 발생한 나무는 매년 같은 과실들이 결실되며 정상적인 과실이 달리던 나무들도 점차 이상과실로 변해간다.

방제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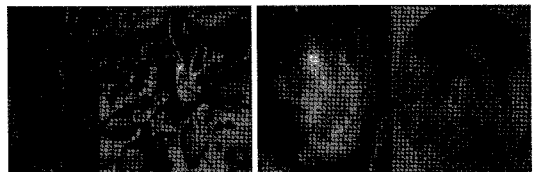
바이러스에 감염된 나무는 되도록 제거하고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우량 묘목으로 다시 심는다.

바이로이드병

껍질에 노란색 반점들이 생기고 과실이 성숙되면서 그 크기가 점점 커져 수확기에는 껍질 전체가 얼룩얼룩해진다. 또한 품종에 따라 동늬가 심하게 발생하고 기형이 되기도 한다. 정상과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꽃받침 부위에서 꼭지 부위로 골이 지는 기형과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상품성이 없어진다.

방제요령

바이로이드병은 작업도구에 묻은 즙액에 의해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병에 걸린 나무가 발견되면 빨리 뿌리까지 뽑아내 태운다. 외국에서 도입한 품종을 사용하지 말고 정식 검역과정을 거친 건전한 우량묘목을 사용함으로써 병의 확산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㉞



▲ 사과모자이크바이러스병 ▲ 사과바이로이드병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2011년 7월호)